

몽생미셀 주변

LA CASERNE & 주차장

LA CASERNE

- 음식 - 테이크 아웃
- 슈퍼마켓
- 바, 레스토랑, 크레이프 빵가게
- 호텔
- 호텔/레스토랑
- 캠핑

- 1 Le Relais St-Michel****
- 2 Hôtel La Digue*** et restaurant panoramique
- 3 Le Relais du Roy***
- 4 Hôtel Gabriel***
- 5 Brioches Dorées
- 6 Les Galeries du Mont Saint-Michel
- 7 Le Pré Salé
- 8 Mercure****
- 9 La Rôtisserie
- 10 Hôtel Vert**
- 11 Camping du Mont Saint-Michel
- 12 Le Saint-Aubert***
- 13 La Bergerie
- 14 La Ferme Saint-Michel

몽생미셀

몽생미셀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2.7km

마차 하차장

퐁토르송-몽생미셀 버스 승하차장

파시르(PASSEUR) 버스 승하차장: 도보로 350m

다르 - 육교

La Caserne

관광안내소

정문
자동차, 오토바이,
캠핑카

- WC 화장실
- WC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화장실
- i 관광안내소
- 전망 좋은 곳
- 기차역 교환
- WIFI
- 동물 출입 금지
- 안내견 출입 허용
- 요금정산기 현금 및/또는 신용카드
- 요금정산기 신용카드

몽생미셀 에 가는 방법



자동차로 몽생미셀까지 가는 경우

자동차를 타고 P2에서 P13까지 번호가 매겨진 광활한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바로 옆에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몽생미셀로 데려다줄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티켓을 받아 보관합니다.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 요금 정산기에 지불합니다. 셔틀버스 및 관광안내소 서비스(화장실, 유아실, 정보) 이용료가 주차 요금에 포함됩니다.



도보로 몽생미셀까지 가는 경우

1 약 45분 소요

주차장에서 도보로 몽생미셀까지 가는 경우 약 45분이 소요됩니다.

다음 3가지 코스를 제한합니다.



> 보행자 전용 도로를 따라 몽생미셀을 향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변두리(La Lisière)” 코스



> “라 카제른”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는 활동 구역,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통과하는 “몽생미셀(Mont Saint-Michel)” 중앙 코스.



> 몽생미셀의 해양적 특성을 복원하기 위한 수력댐을 감상할 수 있는 “쿠에스농 독길(Les berges du Couesnon)” 코스.



파시르 버스로 몽생미셀까지 가는 경우



2 약 12분 소요

자유로운 이용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는 정기 셔틀버스가 몽생미셀까지 데려다주며, 소요 시간은 약 12분입니다. 정기 셔틀버스는 관광안내소와 주차장 옆에 있는 “셔틀버스 주차장 (Place des navettes)”부터 몽생미셀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는 티미널까지의 구간을 연결합니다. 배차 간격은 혼잡 정도와 시즌에 따라 5분에서 20분 사이로 다양합니다. 중간에 “루트 뒤 몽(Route du Mont)” (슈퍼마켓, 레스토랑 및 호텔)과 “플라스 뒤 바라주(Place du barrage)” 2개의 정류장을 거쳐 몽생미셀에 도착합니다.

정규 운행 시간 외에는 요청 시 대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연락처: +33 (0)2 14 13 20 15.



퐁토르송-몽생미셀 버스로 몽생미셀까지 가는 경우



3 약 20분 소요

유료

퐁토르송역에서 열차 도착/출발 시간에 맞추어 정기 버스가 몽생미셀 바로 앞까지 데려다줍니다. 중간에 라 카제른의 활동 구역에서 한 번 정차합니다.



마차 셔틀로 몽생미셀까지 가는 경우



4 약 25분 소요

유료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랭고트(Maringote)”라고 하는 이 서들은 차량 · 보행자 겸용 교량을 거쳐 몽생미셀 바로 앞까지 데려다주며, 소요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출발 횟수는 시즌에 따라 다릅니다.



대중교통 노선 및 SNCF 버스 도착/출발



5 망슈(Manche), 일레빌렌(Ille-et-Vilaine), SNCF 버스 도착 및 출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동이 불편한 경우

www.ot-montsaintmichel.com에서 “Vacances pour tous (모두를 위한 바캉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전거 여행자의 경우

몽생미셀을 방문하는 동안 자전거를 앞에 세워둘 수 없습니다. 댐 부근과 P9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중 시간대에 따라 몽생미셀 접근이 제한됩니다.



유모차를 가지고 온 경우

르 파시르(Le Passeur) 버스는 유모차를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몽생미셀 안에서는 계단이 많아 유모차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씩 베이비 캐리어를 사용하십시오.

주차장과 라 카제른에서 몽생미셀 가는 길

P 주차장 (라 카제른 부근)

- P 지체부자유자 주차장 (자동차 -5m)
- 자동차 주차장 (-5m)
- 캠핑카 주차장 (-8m)
- 관광버스 및 민형 노선 주차장
- 오토바이 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

몽생미셀

주변 발견하기



가이드와 함께 만 횡단하기

모래사장을 따라 만을 횡단하는 것은 순례자들이 걸어서 몽생미셀에 왔던 천년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증된 가이드가 제한하는 코스는 밝으면 폭풍 빠지는 유사(流砂) 발견(1시간 30분), 몽생미셀 일주(2시간), 몽생미셀에서 퐁블렌(Tombelaine)성 탐험 등 다양합니다.



간척지 둘러보기

댐에서 몽생미셀을 마치고 있으면 왼쪽으로 만의 독특한 풍경인 간척지가 보입니다. 19세기에 제방을 건설하면서 바다를 메운 땅에 채소 재배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매우 비옥한 땅에 당근, 감자, 샐러드 또는 핑크 샐롯을 재배했습니다.



몽생미셀 항공 비행

초경량 비행기(ULM)나 일반 비행기를 타고 마치 새처럼 몽생미셀과 만 상공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색상이 무한히 펼쳐진 하늘에서 바다의 아름다운, 구불구불한 강의 흐름, 모래 물결, 사구, 간척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선 몽생미셀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광경입니다!



몽생미셀 산책로

이탈리아의 몬테 가르가노(Monte Gargano)나 사크라 디 산 미켈레(Sacra di San Michele), 독일의 엑스라사펠(Aix-la-Chapelle), 벨기에의 리에주(Liège)와 같은 성 미카엘에 헌정된 유럽의 유적지들은 모두 몽생미셀처럼 산책로를 통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화적 및 정신적 자원에서 몽생미셀에 접근하기까지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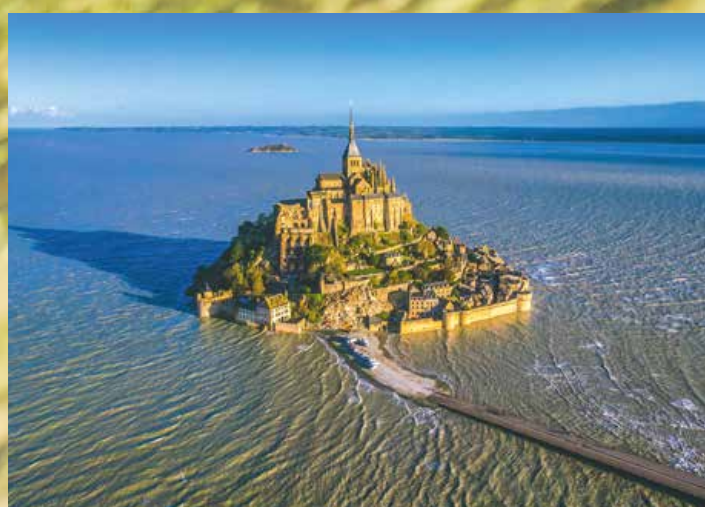
아브랑슈, 스크립토리얼 및 생제르베 수장고 투어

아브랑슈(Avranches)시는 몽생미셀에서 20km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성스러운 모습을 본 오베르 주교의 성유물이 생제르베(Saint-Gervais) 성당의 수장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토리얼(Scriptorial)은 몽생미셀의 필사본 박물관으로, 몽생미셀 수도원의 서가에 보관된 중세 시대의 보물인 채색 장식된 양피지 기록을 통해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프레살레 새끼 양고기에 대해 알아보기

프레살레는 우선 조식상수가 높을 때 바다에 덮인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염분이 함유된 목초지의 이러한 특성은 방목한 양의 육질에 독특한 맛을 부여합니다. 토양의 염분에 적응하여 염생 식물이라고 부르는 이 식물 때문에 이를 먹고 자라는 양은 독특한 성격의 맛을 지니게 됩니다. 고기에 뚜렷하게 짠 맛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 양에 비해 맛이 더 섬세합니다.



조수와 해파에 대해 알아보기

해수면의 높이는 태양과 달의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조수 현상의 영향으로 매일 달라집니다. 보름달이 될 때면 태양과 달이 지구와 일직선 상에 위치하게 되어,大潮(大潮)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조차를 가진 조수를 볼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자연 현상인 해파는 대조 때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는 파도를 말합니다. 바닷물이 강 하구에서 역류하면 갑자기 파도가 높아집니다. 몽생미셀 만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해 세(Sée)강, 셀룬(Sélune)강, 쿠에스농(Couesnon)강 3개 강의 물줄기가 역류합니다.



댐과 차량 · 보행자 겸용 교량 산책하기

댐과 차량 · 보행자 겸용 교량은 몽생미셀의 해양적 특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하는 두 가지 작품입니다. 댐에서 매일 방출(시간은 조식표에 따라 다름)되는 물은 자연적으로 퇴적물을 밀어냅니다. 차량 · 보행자 겸용 교량을 걸어서 건너는 것은 확실히 몽생미셀에 도착하기까지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크리어 놀이 문화마을

몽생미셀 관광안내소 - 노르망디

역내 관광안내소

몽생미셀 관광안내소는 정문을 지나 왼쪽 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년 내내 매일* 열려 있습니다.
(* 12월 25일과 1월 1일 제외)

Boulevard de l'Avancée
50170 Le Mont-Saint-Michel
GPS 좌표 : 48.615914 (48°36'57.29" N) / -1.465602
전화: +33(0)233601430
tourisme.lemontsaintmichel@msm-normandie.fr
www.ot-montsaintmichel.com

서비스:

- 14개 언어로 된 지도
- 매표소(수도권 자유이용권)
- 기념품 상점
- Wifi
- 복사
- 미를로 증서(Les chemins du Mont Saint-Michel)

관광안내소와 서비스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CIT)는 일년 내내*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2월 25일과 1월 1일 제외)



유아실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

부모와 아기의 편안함을 위해 기저귀 교환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

지체부자유자 전용



개입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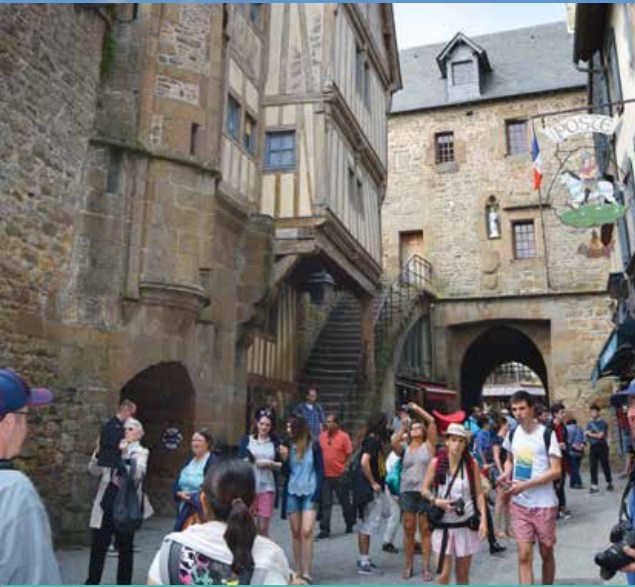
동물은 셔틀버스(적절한 가방이나 바구니에 넣어 운반하는 작은 개와 안내견은 제외)와 수도원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개를 개입에 넣어 맡깁니다.

제작 및 일러스트레이션: Agence Mackenzie Nantes. 번역: LC Lingua
사진 출처: ©Alexandre Lamoureux, ©Jim-Prod, ©CMN, © Luc Arden
등록번호: IM050160002 - 사립자 등록번호(SIRET): 81756789400016



성벽

100년 전쟁 이후 성벽은 몽생미셀에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곱 개의 탑이 순찰로를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북쪽 탑(13세기)은 해안을 향해 부서지며 달려오는 높은 파도를 관찰할 수 있는 훌륭한 지점입니다. 성벽은 수도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리

마을 진입을 막고 있는 3개의 문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면 마을의 심장부인 종심가(Grande Rue)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인 포르트 드 라방세(Porte de l'Avancée)는 수레가 지날 수 있는 문과 보행자를 위한 문 2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이름을 가진 안뜰로 연결됩니다. 안뜰에는 16세기 초에 세워진 옛 부르주아 경비대(Corps de Garde des Bourgeois)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포르트 뒤 불바르(Porte du Boulevard), 세 번째 문은 포르트 뒤 로이(Porte du Roy)라고 합니다. 이제 중세풍의 상점들이 늘어선 종심가로 이동합니다. 많은 상점들이 아름다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을 위쪽에 있는 성 베드로(Saint-Pierre) 성당과 순례자의 집(Maison du Pèlerin), 예루살렘의 십자가(Croix de Jérusalem)는 과거와 현재 이곳의 영적 활동을 말해 줍니다.



기념품

순례자들이 마을을 찾기 시작하면서 골동품 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작은 상점에서 여행 기념품으로 조개껍질을 씌우거나 몽생미셀의 모습이 담긴 순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점 주인들은 중세 시대의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와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표시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퀴스 골목길 (RUELLE DES COCUS)

파수꾼의 골목길(Venelle du Gue)이라고도 하는 몽생미셀에서 가장 작은 길입니다. 워낙 좁아서 뽀이 달린 짐승은 지나갈 수 없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종심가를 지나 라 크루아 블랑슈(La Croix Blanche) 앞에서 왼쪽으로 돌면 나옵니다.



수도원과 경내

유럽에서 조석차가 가장 심한 광활한 만의 한복판에 떠 있는 화강암 바위섬의 정상에 세워진 몽생미셀 수도원은 유명한 수도원임과 동시에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침범되지 않은 요새이며, 중세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유명한 순례지 중 하나였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명을 받은 아브람슈의 오베르 주교가 709년 10월 16일 최초의 성소를 세웠으며, 이 성소는 중세 시대에 불교와 풍부한 장서로 유명한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심장부가 됩니다. 13세기 초에 수도사들과 건축가들은 10세기와 12세기에 바위 정상 주위에 세워진 수도원 부속 성당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 바로 옆 북쪽 사면에 놀라운 고딕 건축물인 라 메르베유(la Merveille)를 세웠습니다. 노르망디 중세 건축의 진정한 걸작품인 이 회랑은 쇼제(Chausey) 군도의 화강암, 강의 돌, 영국 파벌산 흰 대리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이 건축물은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성벽이 보강되었고 프랑스 대혁명 때 감옥으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말부터 멋지게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도원은 국립문화유산센터(CMN)에서 관리하며 관광객들에게 문화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식

여관 겸 식당은 몽생미셀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1872년 아넬트 부티오(Annette Boutiaut)는 하녀로 몽생미셀에 도착해, 이듬해 빅토르 폴라르(Victor Poulard)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여관을 구입해 간단하면서 푸짐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메르 폴라르의 유명한 수플레 오믈렛이 바로 그것으로, 힘든 여행을 마친 순례자들이 활력을 되찾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최초의 건물은 현재 우체국이 있는 곳에 있었으나 사업이 번창하면서 1888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오믈렛 장인들은 매일 이곳에서 장작불에 오믈렛을 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식가들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특산물은 프레살레 세기 양고기입니다. 만의 양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 풀을 뜯어먹어서 양고기의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고 쫄깃합니다. 만의 해산물과 생선도 이 지역의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입니다.



박물관

4개의 박물관에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역사를 재구성한 장면(옛 컬렉션, 무기, 그림, 조각, 시계), 250척의 옛 선박을 축소 모형으로 만든 컬렉션, 한자리 현상 설명, 전망경, 베르트랑 뒤게클랭(Bertrand Du Guesclin) 기사의 저택 등 이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는 성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미카엘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 같으랴”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미카엘은 종종 “하느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기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5세기에 동양에서 전래된 그에 대한 숭배는 서구 전례로 확산되고 8세기 초 몽생미셀로 전파되어 이 바위섬을 중세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유명한 순례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수도원 야간 투어

낮 동안 변화 무쌍한 빛에 노출되었던 수도원과 그 건축물이 해질 무렵에 밝게 빛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마지막 입장 오후 11시) Amaclo Productions에서 국립문화유산센터(CMN)의 위임을 받아 제공하는 새로운 야간 투어 프로그램, “레 크로니크 뒤 몽(Le Chroniques du Mont)”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밤이 찾아오면 천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자연과 인간과 신이 하나로 되어 비전과 섬광과 음향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교향곡을 연주하는 레 크로니크 뒤 몽이 펼쳐집니다. 무료 야간 쇼가 진행되는 내내 이제껏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동원하여 14가지 독창적인 무대 장식을 선보입니다.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Abbaye du Mont-Saint-Michel 50170 Le Mont-Saint-Michel - 전화: +33 (0)2 33 89 80 00 7월과 8월에 수도원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즐길 수 있는 야간 투어



성 베드로 교구 교회

15세기와 16세기에 세워진 교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성 미카엘 대천사 예배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에서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 베드로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순례자들은 몽생미셀에 도착하면 먼저 상징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 앞을 지나 지상 낙원의 상징인 수도원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당당히 자리잡고 있는 잔다르크 상은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잔다르크를 인도한 대천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을 모퉁이는 교구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며, 메르 폴라르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가브리엘 탑(TOUR GABRIEL)과 선착장

서쪽을 지키는 돌출 회랑이 있는 이 탑은 1524년경 탑을 건립한 왕의 부관 가브리엘 뒤 뤼(Gabriel du Puy)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한 세기 후, 탑 꼭대기에 암창기가 설치되었고 19세기 말에는 쿠에스농강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인도하는 등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탑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옛 선착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링이 여전히 과거의 해양 활동을 말해줍니다.



작은 정원

마을의 절반은 항상 공사가 없었습니다. 몽생미셀이 포위되었을 때 주민들은 이 보호지를 경작하여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심가에 있는 집들은 안에 작은 정원이 숨겨져 있어 성벽 위에서나 골목길과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정원은 탁월한 향을 지닌 토착 장미의 한 종류인 “메르베유 뒤 몽생미셀(Merveille du Mont Saint-Michel)”이 피어 있습니다. 수도원 속소 아래에서는 아직도 수도원 공동체가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운 바위의 북쪽은 아생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몽생미셀 역사

몽생미셀의 화강암 바위는 원래 몽툼브(Mont Tombe)라고 불렸습니다. 708년, 미카엘 대천사가 성 오베르 아브람슈 주교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딴 예배당을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966년, 베네딕트 공동체가 정착해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순례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 교회가 너무 작아짐에 따라 바위섬 아래쪽에 초기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1세기에는 지하 납골당 4개와 수도원 부속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13세기에 3층 건물 2개와 경내, 수도원 식당으로 구성된 라 메르베유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전쟁(1337-1453)으로 인해 몽생미셀은 스스로 군사 시설을 갖추고 약 30년 동안 포위 공격에 견뎌야 했습니다. 3km 떨어진 툴렌 섬은 영국군의 요새가 되었으며, 성채와 망루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군의 포위 공격으로 수도원 부속 성당의 로마네스크 양식 내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내진은 전쟁이 끝나고 현재의 플랑부아양 고딕 양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도사들이 떠남에 따라 수도원은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1863년까지 14,000명의 죄수들이 조수와 밭으로 폭폭 빠지는 모래 때문에 탈옥이 불가능한 이 “바다의 바스티유(Bastille des Mers)”에 감금되었습니다. 1874년, 역사적 기념물 담당 부서(Service des Monuments Historiques)에서 건물을 복원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객 운송을 위해 1879년 제방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1901년에서 1938년까지 종도르송시와 몽생미셀 사이에 증기 전차를 운행했습니다. 결국 몽생미셀은 해양적 특성을 잃게 되었으나 최근의 공사 덕분에 되찾게 되었습니다. 1940년에서 1944년까지 독일군이 점령했음에도 기적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 몽생미셀에서 꼭 봐야 할 곳**
- 정문
 - 파빌 입구
 - 도개교
 - 시청
 - 해양생태박물관
 - 코퀴스 골목길
 - 아르케오스코프
 - 성 베드로 교구 교회
 - 로지 티펜
 - 순례자의 집
 - 북쪽 탑
 - 수도원 입구
 - 예루살렘의 십자가
 - 작은 학교
 - 역사박물관
 - 생도베르 예배당
 - 가브리엘 탑

- 마을에서**
- 그랑드 뤼
 - 계단
 - 파빌의 길
 - 성벽 길
 - 음식 - 테이크 아웃
 - 바, 레스토랑, 크레이프 빵가게
 - 호텔
 - 호텔/레스토랑
 - 민박
 - 18 La Terrasse de la Mère Poulard
 - 19 Auberge de La Mère Poulard***
 - 20 La Confiance
 - 21 Les Terrasses Poulard***
 - 22 La Sirène
 - 23 Auberge Saint-Pierre***
 - 24 La Fringale
 - 25 Le Petit Breton
 - 26 La Belle Normande
 - 27 La Croix Blanche***
 - 28 Le Chapeau Rouge
 - 29 Le Du Guesclin**
 - 30 Le Mouton Blanc***
 - 31 La Terrasse du Mouton Blanc
 - 32 Le Saint-Michel
 - 33 La Cloche
 - 34 La Vieille Auberge**
 - 35 Les Terrasses de la Baie
 - 36 Le Café Gourmand
 - 37 La Tête Noire

- 시설**
- 화장실
 -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화장실
 - WiFi
 - 가져귀 교환
 - 동물 출입 금지
 - 안내견 출입 허용
 - 관광 안내소
 - 전망 좋은 곳
 - 우체국
 - 현금 인출
 - 가이드 동행 필수 투어
- 몽생미셀 근처에서 조차도 만은 위험합니다. 가이드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